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2월 23일(일) 제1529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 순장영성수련회’ 3월 3일 오전 9시 서빙고 본당
리더십 2,100여 명 참석,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32명 임명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온누리교회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2025 순장영성수련회’가 3월 3일(월)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리더십(장로, 공동체 총무, 다락방장, 순장) 2,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32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2025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한강공동체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발표와 패널 토의, ‘한국 교회와 열두 돌’ 영상 상영,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 온누리 순장 어워드(Award), 기도회, 순장 명랑운동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섬긴 순장), 최다산 순장상(분수를 가장 많이 한 순), 기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 순을 섬긴 순장), 감동 순장상(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준 순장), 최고령 순장상을 시상한다. 겔럭시 핏3, 텀블러, 종아리 마사지기, 손 마사지기,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을 선물한다.

이번 순장영성수련회 패널 토의 주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다. 조호영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기원 목사, 김승수 목사, 심희돈 장로, 김건백 순장, 양지는 자매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순장 명랑운동회는 11시 30분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공원 풋살장에서 열린다. 협동파도타기, 풍선발 뿔기, 2인3각, 6인7각, 돼지몰이, 협동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신발양궁, 중국제기차기 등을 한다.

순장영성수련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 당일 교회주차장(교회 지상 및 지하, 온누리

청소년센터 임시주차장)는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량은 인근 유료 주차장(동작대교 밑 공영주차장, 신동아쇼핑센터, 한강시민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이용해야 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춘역(4번 출구)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어린 자녀(36개월~초등 3학년)와 함께 오는 리더십을 위한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2-3215-323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

강동온누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다. 강동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 국내 8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로 창립했다. 청년들과 차세대, 지역사회 이웃들을 섬기며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준호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강동온누리교회를 17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리며 올해 표어와 같이 강동온누리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온누리교회 17주년 창립감사예배는 2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23일(일) 오전 9시, 11시 30분 강동온누리교회 12층 본당에서 드린다. 연합찬양사역팀이 특순한다.

온누리공동체 2025년 상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 2025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2월 25일(화)부터 3월 14일(금)까지 공동체별로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2025년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연달아 개최한다. 3월 3일 순장영성수련회, 3월 10일~4월 18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과 사순절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3월 15일 장로사관학교, 4월 19~20일 부활주일, 5월 3~4일 어린이주일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14~16일 회복축제, 6월 11~13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5일(화)	신용산	두란노홀	18:00
2월 25일(화)	서대문	한동홀	18:00
2월 25일(화)	관악금천	시온홀	18:00
2월 27일(목)	가정사역	두란노홀	18:00
2월 28일(금)	s브릿지	두란노홀	18:00
2월 28일(금)	이촌	한동홀	18:00
2월 28일(금)	마포	비전홀	18:00
2월 28일(금)	성동광진	시온홀	18:00
3월 2일(일)	특초	순형홀	17:00
3월 4일(화)	서빙고	두란노홀	18:00
3월 4일(화)	성북	시온홀	18:00
3월 4일(화)	영등포구로	한동홀	18:00
3월 4일(화)	여의도	여의도정곡빌딩4층	18:00
3월 4일(화)	강촌	비전홀	18:00
3월 5일(수)	OCC	두란노홀	18:00
3월 5일(수)	양천	한동홀	18:00
3월 6일(목)	동대문중랑	두란노홀	18:00
3월 6일(목)	동작	비전홀	18:00
3월 6일(목)	노원	한동홀	18:00
3월 7일(금)	찬양사역	비전홀	18:00
3월 7일(금)	이수	시온홀	18:00
3월 7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3월 7일(금)	용산	한동홀	18:00
3월 7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8:30
3월 8일(토)	일산파주	일산비전센터	18:00
3월 8일(토)	고양은평	두란노홀	18:00
3월 8일(토)	북누리	북누리 비전센터	16:00
3월 8일(토)	김포	비전홀	18:30
3월 8일(토)	강서	한동홀	10:30
3월 14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18: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5일(화)	강남C	화평홀	19:30
2월 25일(화)	양재A	온유홀	19:30
2월 25일(화)	도곡	드림홀	19:30
2월 27일(목)	과천의왕	드림홀	19:30
2월 28일(금)	분당A	화평홀	19:00
2월 28일(금)	강남A	온유홀	19:30
2월 28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3월 2일(일)	POINT5	하용조기념홀	11:30
3월 2일(일)	푸른누리	도곡 기쁨홀	14:00
3월 2일(일)	하모니	두란노홀	16:30
3월 4일(화)	송파B	화평홀	19:30
3월 4일(화)	서초B	기쁨홀	19:30
3월 4일(화)	서초A	드림홀	19:30
3월 6일(목)	강남B	화평홀	20:00
3월 6일(목)	서초C	드림홀	19:30
3월 7일(금)	분당B	화평홀	18:00
3월 7일(금)	양재B	온유홀	19:00
3월 7일(금)	서초D	드림홀	19:30
3월 7일(금)	강남E	도곡 기쁨홀	19:30
3월 8일(토)	경기A	안산M센터	11:00
3월 8일(토)	강남D	화평홀	17:00

캠퍼스			
3월 7일(금)	부천 믿음	본당	20:00
3월 8일(토)	부천 소망	자택 204	18:00
3월 7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20:00
3월 8일(토)	부천 화락	비전홀	11:30
3월 8일(토)	부천 화평	본당	17:00
3월 7일(금)	수원 동누리	기흥 ICT밸리 C동 1층 본당	20:00
3월 6일(목)	수원 서누리	기흥 ICT밸리 C동 1층 본당	20:00
3월 8일(토)	수원 남누리	기흥 ICT밸리 C동 1층 본당	21:30
3월 14일(금)	수원 북누리	기흥 ICT밸리 C동 1층 본당	20:00
3월 7일(금)	대전 동누리	대전 2층 누리홀	19:30
3월 7일(금)	대전 서누리	대전 4층 비전홀	19:30
3월 7일(금)	대전 남누리	대전 본당	19:30
3월 7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 본당	19:30
3월 8일(토)	남양주A	본당, 기쁨홀	16:00
3월 8일(토)	남양주B	본당, 비전홀	10:30
3월 8일(토)	남양주C	비전홀	16:00
3월 2일(일)	평택 연합	본당	14:00
3월 7일(금)	인천 연합	본당	20:00
3월 7일(금)	강릉 연합	본당	20:00
3월 8일(토)	양지 연합	박모세를	14:00
3월 7일(금)	영종 연합	백향목홀	19:30
3월 9일(일)	제주 연합	본당	12:00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여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사데 교회, 영적 상황은 서머나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고난 중 하나가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가해진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로마 당국이 핍박하기 전에 유대인 회당이 먼저 핍박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회당도 지을 수 있었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나 신흥 종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축출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당국의 핍박 대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왜곡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 열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7절). 유대인 공동체와 장차 로마 당국에 의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7)-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7~13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믿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시험의 때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거짓과 악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사 22:22). 특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백성, 그것이 아닌 자들을 선언하고, 결정짓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열쇠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는지를 결정하는 그 열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좁은 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었을 때 그들 인생의 문, 믿음의 문, 기회의 문이 닫힌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8절). 진정한 열쇠를 가진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 문은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열린 문’이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 크게 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견해와 ‘새로운 전도의 기회, 사역의 기회’라는 의견입니다. 단어 자체가 열린 문인데 어느 한 가지 해석만 주장하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보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바로 그때 내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 찾아오는 열린 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실 때 문을 닫으심으로써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닫으셨다면 아무리 하소연하고 불평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분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문을 계속 두드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

주시는 문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열린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은 곧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요 10:9~10).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며 동시에 문이 되십니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노아의 홍수 때 제작한 방주도 문이 하나입니다. 성막에도 성전에도 문이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것은 구원받은 다른 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행 4:12).

해 아래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린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마 7:13~14).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동시에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외면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겸손이 나와 이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심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로마 사회에서 낮은 신분 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 약한 가운데서

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안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핍박받는 시험에 처해 있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 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함 가운데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대적자들이 그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9절). ‘꿇어 엎드리게 한다’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 회중 가운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10절). 지금까지 경험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도 너를 지켜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셋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약속합니다(12절). 놀라운 사실로 요동치는 땅에서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이름이 적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의 공동체 속한 성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믿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약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장애입니다. 시험의 때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믿음이 부족한 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거짓과 악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창조 신앙과 진화론적 사고

예수님의 기적과 창조사역의 연속성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며 (요 1:1~3), 그분의 사역이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창조사역의 연속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기적은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이는 혼란이나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완성하는 행위였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창조사역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의 신적 능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요 2:4)고 말씀하시며 즉각적인 응답을 보류하셨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셨고, 물이 즉시 포도주로 변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빛과 생명이 창조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창 1:3, 요 1:3). 즉, 예수님의 기적은 새로운 창조 사건이며,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과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임이 분명하다. 포도주는 주

로 물(H₂O)과 에탄올(C₂H₅OH)로 구성되고, 다양한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즉시 일어나야 한다. 탄소 화합물의 형성 과정에서 물은 수소(H)와 산소(O)로만 이루어져 탄소(C)가 포함된 화합물을 형성하려면 외부에서 탄소 원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와 물이 유기물로 변환되지만, 예수님의 기적에서는 이 과정이 즉시 발생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의 단축을 보면 일반적으로 포도즙이 효모에 의해 발효되면서 당(C₆H₁₂O₆)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C₆H₁₂O₆ → 2C₂H₅OH+2CO₂’ 즉, 포도당 한 분자와 이산화탄소 두 분자로 분해된다. 이 과정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이 즉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 모든 화학적 반응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포도주의 색과 맛을 결정하는 안토시아닌, 타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화합물이 자연적으로는 포도 껍질과 씨앗에서 추출되어야 하지만, 기적적인 변화에서는 이러한 분자가 즉시 형성되었다. 이는 원자 배열과 화합물 조성이 순간적으로 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이는 인간이 현재 이해하는 화학적 반응을 뛰어넘는 초월적 창조 행위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사역을 강

력하게 증거하는 표적이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창 1:1~3).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은 기존의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의 연속이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요 6:1~14),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요 9:1~7),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 11:1~44) 등 모든 표적이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제자들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후 5:17).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학적 세계관을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분명히 선포한다. 현대 진화론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생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목적과 설계 없이 우연에 의한 결과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계획하셨으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지

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을 갖춘 분이시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지금도 적용하시며 우리의 삶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사 43:19).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한필규 장로
(서빙고 파워웨이브3부
담당, 이춘공동체)

특별기고

인도의 교회와 ‘도마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사에 따르면,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인도에 전한 이래 수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채로운 역사를 열었다. ‘도마의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진 이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신실하게 섬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중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 노예 상태와 매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인도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 일 것이다. 그녀는 관행을 금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예로, 스코틀랜드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 힌두교의 상류층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념이 가진 모순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어와 과학, 성서학을 가르쳤다. 그의 노력은 크리스나 배너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학문과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인도에 가져왔고, 복음주의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면서도 인도 문화를 존중하는 기독교적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힌두교 당국은 사도 도마가 불을 지핀 불꽃을 끄려고 수 세기 동안 노력했다. 사실 그들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앙 지도자들의 노력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개종 금지법,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선거, 기독교인과 힌두교가 아닌 소수 민족에 대한 잔인한 대우 등 여전히 종교적으로 박해가 심

한 곳이다. 인도의 28개 주의 거의 절반이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가 심해지면서 폭도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세계 박해 지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아난티 제바싱 박사는 1998년까지 빈민촌의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600명 이상을 가르쳤다.”

“인도의 개종금지법은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예배 송가를 부르는 것, 단례로 모이는 것, 자선 활동과 같은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관행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도들에게는 이 법이 자신들의 불만을 정당화해 주고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공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2025년 윌리엄 월버포스 어워드의 수상자 ‘아난티 제바싱’ 박사 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거기 있다. 콜슨 센터는 매년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종식

하는 데 이바지한 윌리엄 월버포스처럼, 원칙에 입각한 용기를 보여준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제바싱 박사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했고, 교육으로 유명한 남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는 어렸을 때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몇 년 뒤, 한 어린 소년이 음식을 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을 찾았다. 제바싱 박사는 그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에 더해 ‘그 아이를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 소명’을 느꼈다. 일주일 뒤, 그 소년은 다른 25명의 아이와 함께 그녀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다시 왔다. 그녀는 집에서 100명 이상의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알라카난다 빈민가의 이른바 ‘화장실 단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학교’의 시작이었다.

아난티 제바싱 박사는 1998년까지 빈민촌의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600명 이상을 가르쳤다. 그녀는 지금 인도 뉴델리에서 15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1천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무상교육과 영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힌디어로 존경하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맘마지’라고 부른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원문: breakpoint(20250207)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창조세계 돌봄, 그리스도인의 사명!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하는 다섯 가지 실천

새해에는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혼자 하기 쉽지가 않다. 동역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수월하다. <온누리신문>에서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마지막 순서는 '창조세계 돌봄'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자는 지난 한 주 동안 탄소 배출량을 3.84kg 줄였다. 기자가 한 일이라고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은 것뿐이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대청소할 겸 집 안을 둘러봤더니 버릴 게 너무 많았다. 여러 종류의 갖가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떠오른 게 '분리수거 업체'였다.

분리수거 업체는 집이나 회사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해 처리해 주는 곳이다. 고객은 쓰레기를 종류 구분 없이 전용 봉투 하나에 모두 담아 문밖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이후 분리수거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세척이 필요한 쓰레기와 세척이 필요 없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등의 폐기물은 재질별로 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한 분리수거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종량제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실천 사진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 37%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그중에서 40%가 넘는 자원이 폐기물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 버려지던 40%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할 경우 1kg당 1.8kg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

집에서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 바쁘거나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고, 창조세계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왜 창조세계를 돌봐야 하는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창조세계 돌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창조세계 돌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은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창 1:28, 2:15).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다. 신앙적 사명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을 저버렸다. 돌보라 하신 자연을 파괴하고, 보살피라 하신 생명을 해하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점점 병들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 밟는 땅, 바라보는 하늘이 신음하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더는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 돌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쉬운데, 실천하지 않는 다섯 가지 방법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를 해결하고자 '생명과환경팀'을 신설했다. 생명과환경팀은 '생명'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사역하고 있다. 우선 '생명' 사역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회복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의 이념이 끼친 해악으로 인해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낙태, 동성애, 자살, 아동 학대와 같은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을 낳았고, 최근에는 저출산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환경팀은 다양한 강의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생명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을 교육하고 있다.

'환경' 사역은 탐욕과 소비주의 세계관에 물든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고 파괴되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요 3:16).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뿐 아니라 창조물인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 돌봄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무 잘 알고 있고 쉬운데 실천하지 않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쓰레기 줄이기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와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자.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잔반을 줄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절약하기다. 가정과 회사 등에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하기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좋다. 넷째,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 가능한 게 정말 많다.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세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다. 다섯째,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기다. 쓰레기 주우며 조깅하는 '줍깅',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용기(容器)에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내 챌린지',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나무를 심는 '나무 심기 캠페인' 등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이 많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에서도 매년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창조세계 돌봄'이다.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역칼럼



강종도 장로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 OCC공동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평소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실천 운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 신앙 절제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역의 공식적인 이름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다. 매년 연초, 방학 동안 다소 풀어졌던 신앙을 돌아보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신앙 운동은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돌아보는'(약 2:22) 성육신적

사역이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대형 배너와 함께 <온누리신문>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캠퍼스, 공동체, 다락방과 순 가족들을 찾아가는. 혼자 하면 실천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캠페인 참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는 올해도 변함없이 차세대가 참여한다. 어린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다 보니 작은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면서 많은 간증이 나올 것 같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캠페인을 담당하는 생명과환경팀의 사역도 벌써 10년 되었다. 교회 밖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운동은 대부분 NGO가 앞서 나갔고, 교회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사회 문제와 정치적인 이슈, 인본주의가 근간을 이루면서 교회와 이질감이 있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10년 전 신앙적으로 생명과 환경 문

창조물을 돌보며 다스리도록 부르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청지기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올해도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이 이어진다. 주제는 '창조세계 돌봄'이고, 부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이 실천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온누리교회 가 되기를 기도한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의 마음을 여는 ‘반영적 경청’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부모가 알아야 할 의사소통 기술 중 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는 ‘ 반영적 경청’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 다. 자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다. 자 녀가 속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가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가 변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코 치 역할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 역할을 감 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 술’이다. 이 기술을 배워야 비로소 부모의 말 이 변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소통 기술을 배웠다 고 해서 즉시 말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 요하다.

부모들이 자주 겪는 문제 하나가 자녀의 감 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 녀가 자주 울거나 낮을 가리거나 자존감이 낮 고, 산만한 경우 부모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한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무 수히 많은 말을 던지거나 잘못된 태도를 보여 주는 결과가 축적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녀가 소심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산만하 고, 화를 잘 내는 이유는 부모와의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나 상담 센터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 부모가 의사소통을 잘하면 자녀와 관계가 훨 씬 좋아질 수 있다. 자녀와 어떤 말을 주고받 았는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돌아 보는 게 우선이다. 자녀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 났다면 부모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의사소 통 방법을 배워야 할 시점이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관계 가 좋을 때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큰 문제 가 없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말 한마디가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말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을 잘 배우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대화 기술, 관계 기술의 대가 토머스 고든 (Thomas Gordon) 박사가 개발한 ‘부모효율 성이론’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g) 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기법을 제시한다. 이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자 녀와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문제 소유 권 파악하기’다. 문제가 부모에게 있는지, 자 녀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입이 삐죽 나온 채로 집에 들어와 광 광둥 걸으면서 문을 확 열고, 가방은 침대에 던지다시피 내용물이 쏟아졌다. 이때 문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 상황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 힘든 상태다. 그럼 부모는 문제 를 소유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상하 게 자녀의 문제에 부모가 같이 힘들어한다. 자 녀가 시험을 못 봤거나 친구와 싸우고 들어오 면 아이가 문제를 소유한 것이고, 아이의 감정 이 힘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 녀보다 자기가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힘든 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이야 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 배우 라고 했지? 태권도 배웠으면 맛을 일도 없었 겠지. 왜 바보처럼 맛고 다녀!”라고 쏘아붙인 다. 도와주는거냐 아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낸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문제를 소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힘든 감정을 표

현할 때 부모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해야 한다. 반대로 부모가 힘들 때는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이 무엇일까?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경 청해야 할까? 이때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술이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이다. ‘반영 적 경청’이라고도 한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영적 응답을 통해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구가 네 이야기를 오해해서 정말 억울하겠 다”, “선생님이 큰소리를 내실 때 네가 정말 무서웠겠네” 등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 해주는 것이다. 자녀의 힘든 감정이나 마음을 추측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명 ‘경청’ 이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적극적 경청을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아이가 힘들 때 그 마음 을 잘 알아주고,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서 말해 줌으로써 ‘엄마(아빠)가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 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읽어 주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을 스스로 찾아낸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 아주면 자녀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자존감이 충만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기 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열고,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자녀에게 문제 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모의 생각을 건네지 말고, 그냥 자녀의 문제를 인정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자. 부모 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그 마음 에 복음도 심을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 모의 부모 면허 9편 반영적 경청’을 요약 및 정리 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85. 편식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18~19 일 본문 '요 13:21~27, 31~35'

1.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자의 배신에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를 미리 아시고,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시며 “하러는 일을 어서 하라”고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의 빵을 받은 제자가 누구인 가요?
- ① 베드로 ② 요한 ③ 마태 ④ 가롯 유다

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 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 인가요?
- ① 서로 용서하라
② 서로 기도하라
③ 서로 사랑하라
④ 서로 도와주라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 를 이 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 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 1527호 정답자
윤하루(인천 유치부), 김여준(서빙고 초등2 부), 오창빈(서빙고 유년1부), 최하연(서빙고 유치1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말씀을 읽고, 지키며, 전하는 나!

맥스웰 목사님은 제일교회 목사님이다. 어 느 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 데,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예 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고 묻고 쓰러졌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와 보살피고 간호했다. 어느 날 새벽, 그 남자는 맥스웰 목사님에게 “정말 예수 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라고 말하고 숨 졌다.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 사님이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1년 동 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 게 하실까?’ 를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제안했 다. 이 제안을 냈을 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 아 감동받았다.

책에 나오는 제일교회 성도들과 신문사 사장 노면이 훌륭한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 온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습, 에드워드 목사님 이 새 삶을 살게 해준 번즈가 힘차게 사는 모습 등의 환상이 정말 감동이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뒤로 온 나라의 청년들이 뒤따라 걷 는 장면도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나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다. 마침 교회에서 앤젤트리 행사를 시작해서 나 도 용돈을 모아 참여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 하는 일을 시작해서 정말 기뻐다.

둘째, 이 책에 나오는 맥스웰 목사님, 에드워 드 목사님, 그레이 전도사님, 브루즈 목사님,

버지니아, 레이첼, 노먼, 파워즈, 페실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훌륭한 사람 이 되고 싶다.

셋째, 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늘 고민하며 예수님 뜻을 따라 사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우 리집 가훈을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실 까?’ 로 정하기로 했 다. 조금 더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며, 전하는 내가 되고 싶다.



최하이 학생
(서빙고 초등2부)

빛과 선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3악장’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이수공동체)

얼마 전 CGN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시청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할 기회가 있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바울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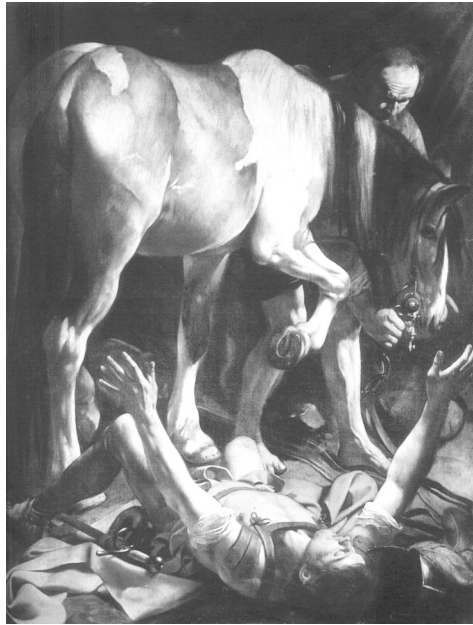
님과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의 회심이 역사적·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탐구했다. 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작품이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이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라바조의 대형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성당들이 있다. 그중에서 포폴로 광장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 있는 카라바조의 두 작품은 보고 온 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다. 포폴로 성당에서 본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신앙의 깊이로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성경에서 강렬하게 묘사된 이 장면을 그는 화폭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한 감동적인 작품이다.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는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다. 극적인 명암 대비 기법(키아로스쿠로)을 활용해 사실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담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성경 속 인물을 이상화하기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신앙의 깊이를 더욱 강조했다. 그의 성화들은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이미지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예술적 도전이자 성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 이야기를 현실 속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신성한 순간을 극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로 표현했다. 특히 하나님의 빛을 통한 회심의 순간을 강렬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신앙적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한다. 카라바조의 성화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작품이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종종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갈등을 반영하고, 믿음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깊은 결단임을 보여준다.

카라바조는 바티칸 성당이나 궁정의 화려한 벽화를 그리던 전통적인 르네상스 화가들과 달랐다. 그는 화려한 이상주의보다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기에 그의 그림 속 성경 이야기는 추상적인 신화나 상징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왼), 미켈란젤로의 〈사울의 회심〉(오).

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느껴지는 힘이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울의 회심

카라바조의 그림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취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행 9:3-4).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의 빛에 의해 넘어지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림 속 사울은 땅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다. 말과 함께 뒤엎긴 그의 모습은 혼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라바조는 오직 빛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 그가 사용한 명암법(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은 단순한 조명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순간을 상징한다. 사울은 눈을 감고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 진정한 ‘영적 시력’을 얻는다. 그는 이제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그의 영혼이 열리며 참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 작품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의 신부가 그림을 보고 “도대체 왜 말을 가운데에 두고 사울은 땅에 누웠느냐? 가운데 크게 그려진 이 말이 하나님이나?”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때 카라바조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때로는 강렬한 빛으로,
때로는 조용한 선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다가오신다.”

있습시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작품의 중심을 설명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임한 곳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같은 성경적 내용을 매우 대조적으로 그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의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자. 카라바조보다 60년 전에 미켈란젤로는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르게 그렸다. 바오로 채플에 있는 그의 〈사울의 회심〉은 장엄한 스케일과 강렬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손을 뻗고 있으며, 병사들과 말들이 소란스럽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사울은 군중 속에서 작은 존재처럼 보이며, 거대한 영적인 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과 심판을 강조했다면, 카라바조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조명한다. 미켈란젤로의 사울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카라바조의 사울은 오직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 카라바조는 신앙이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카라바조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천둥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빛은 조용히 다가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순간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넘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회심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한다.

빛과 선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카라바조의 작품을 감상할 때 드보르작(Antonín Dvořák)의 ‘교향곡 8번 3악장’을 함께 듣는다면 더 깊은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체코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보헤미아의 자연 속에서 탄생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인데, 그중 3악장은 다른 분위기를 띤다. 왈츠풍의 리듬이지만 단순한 무도곡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선율이 특징이다. 바울의 회심 과정을 떠올리며 감상해 보면 좋다.

이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기묘한 느낌을 준다. 춤을 추듯 흐르다가 갑자기 변덕스럽게 멈추고, 다시 시작된다. 마치 깨달음이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우리를 감싸는 듯하다. 곡의 시작부터 흐르는 하행하는 선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는데, 저자는 이를 들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같은 축복처럼 받아들인다.

음악이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과 두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지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싸는데, 마치 사울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과 같다.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3악장’을 함께 감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다. 곡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듯한 하행하는 선율은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강조되는 장면과 연결된다. 그러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는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축복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목관악기와 현악기 위주로 연주되는 3악장은 G단조(G minor)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G장조(G Major)의 코다(Coda, Molto Vivace)로 이어진다. 마치 다음 악장을 준비하는 듯한 마무리는 그림 속 사울의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성경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다. 3악장이 끝나고 화려한 트럼펫 솔로가 울리는 4악장 도입부는 변화한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팡파르(fanfare)처럼 들린다.

예술과 신앙은 서로를 비추며,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때로는 강렬한 빛으로, 때로는 조용한 선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다가오신다.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한다. 카라바조의 빛처럼, 드보르작 교향곡의 유려한 선율처럼.

멘토가 멘티에게

“은혜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기!”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만 가득한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질이 없어도, 지식과 재능이 없어도 정말 쉽게 배우는 게 원망이라고 한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자신,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귀 기울여 들으신다. 당장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필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자리로 나가지만, 매번 감사의 기도만 드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처한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 영적 상태가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공작 내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따뜻한 위로를 해 주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부정적인 마음을 풀기도 한다. 그러나 이내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당신을 찾고, 원망의 마음, 속상한 마음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대화하며 풀기를 원하신다.

예전에 필자도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불평이든 원망이든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당장 앞에 놓인 상황만 눈에 들어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 목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나요?”라고 질문했다. 나는 속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라고 대답했다. 목사님이 “우리 뇌에 전두엽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감사일기를 써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오늘 바로 쓰라”고 하셨다. 나는 살기 위해서 바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감사 거리를 찾다 보니까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각이 변하니까 언어와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3개월쯤 지나

니까 “죽을 것 같다”고 대답했던 내가 “살 것 같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감사를 결정하고 연습하다 보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생각의 변화로 인해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거리를 찾다 보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기도만 해야 한다면 매일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안아 주신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매 순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원망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뀐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6-18)

이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확신하자. 항상 기쁨이라는 삶의 태도로 바쁜 일상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 훈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명열 멘토 (CHPLUS)

이슈(Issue) 바로보기!

트랜스젠더와 생육 번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광기를 끝내겠다”면서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제대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퇴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대통령 취임 첫 메시지가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있다. 미국 아마추어 수영대회에서 여성호르몬을 맞은 남성 선수의 출전을 허용했다. 이 선수가 월등한 힘을 앞세워 출전한 대회마다 우승하자 여성 선수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또 여성 배구 대회에서 성전환 선수를 보유한 팀과 대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몰수패를 당한 팀이 그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논란에 대응해 성전환한 운동선수의 여성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전환을 해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녀의 성은 수태(受胎) 시에 이미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된다.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이고, 남자는 X 성염색체만 가지고 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이고, 정자는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Y 염색체를 가진 두 종류가 있다. 수태시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X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만나면 XY 성염색체를 가지게 되어 남자아기가 태어난다. X 염색체 정자와 X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만나면 XX 성염색체가 되어 여자아기가 태어난다. 트랜스젠더란 사회적 성(지정 성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XY 성염색체를 가져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해서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성으로 취급해 달라고 주장한다. 테슬라 전기차동차 창업주 일론 머스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미성년자였던 아들이 자신은 여성이라면서 여러 차례 성전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이다. 이 일은 민주당 지지자였던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트랜스젠더 남성은 호르몬 요법과 수술을 통해서 여성과 흡사하게 변해 가지만, ‘트랜스 여성 선수들이 여성 부문 경기에 참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에 의해 IOC는 성전환 수술을 하

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2년 이상 시행한 트랜스젠더의 올림픽 여성 경기 참가를 허가했다. 그 이후 진행된 파리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복서에게 코빠가 부러지게 얻어맞은 이탈리아 여성 선수가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하는 일이 생겼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선수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공통점도 있다. 동성애자끼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수태되어야 임신이 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정체성과 사회적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임신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남자나 여자나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역할을 바꾼 것이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지구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살 땅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많이 생산하고 잘 키워서 땅을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새 생명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위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할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트랜스젠더와 동성애가 왜 말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될까 두렵다. 성경 같은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로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맛있는 말씀 해설

“... 그날 이후로 여호와와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삼상 16:13)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밌던 것은 다윗의 이야기였다. 작은 소년 다윗의 용맹한 모습은 어린 나에게 영웅 그 자체였다. 그중에서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삼하 5:4). 왜 다윗은 사울처럼 바로 왕이 되지 못했을까? 사울의 기름 부으심과 다윗의 기름 부으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을 사용하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기름뿔’을 사용하게 하셨다. 병은 쉽게 깨지지만, 뿔은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며 고귀함과 능력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사울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반면, 다윗의 기름 부음은 영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윗의 계보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

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다.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삼상 9:4~7). 반면 다윗은 ‘나를 위해서’(삼상 16:3), 즉,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창 12:3, 22:17~18)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유대인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사울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삼상 13:12~13)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하며 자신을 위한 전리품을 남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삼상 15:1~12).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성실히

의무를 다했던 사울, 왕으로 소개되는 군중들 앞에서는 짐꾸러미 속에 숨어있던 부끄럼 많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지만, 사울 왕을 섬기고, 자신의 기름 부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섬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며 내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단순히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함은 먼저 성령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섬김이 없는 자에게는 온전한 성

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능력이 나타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가고, 거짓된 능력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섬김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면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성령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시듯,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며 겸손히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승철 목사
(양천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

2월 24일~3월 2일
〈요한복음〉 15:9~17:19



목상포인트

1: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시며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우리가 실현할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

상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묵상하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택하신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서

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증언할 것이다.

목상포인트 2: 예수님은 그분의 부재로 인해 당황할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겪을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받으리라고 약속하신다. 환난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시며 실족하지 않기를 당부하신다.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함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 알려 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며,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하신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목상포인트 3: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

신 기도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신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주어진다. 아버지께로 가서야 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전하셔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시며 존중해 주신다.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낮은 자, 작은 자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반복은 강조다. 나의 교만한 습성, 나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잡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주어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들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청소년기에 꽤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삶을 얻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뇌 손상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재활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아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금이야 옥이야 손주를 키워주신 시어머니가 제 아들의 중한 상태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며 깊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눈물로 믿음을 지키며 버텨오신 시어머니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지주막하뇌출혈’이라는 병으로 여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셨지만,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세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이 어린 둘째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큰 아들이 재활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을 대신해 둘째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생긴 절망으로 모든 가족의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언제쯤이면 희망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에게 시련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김포공동체)

“작은 바울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CGN ‘바울로부터 패키지’ 선물 캠페인

CGN이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은 ‘바울로부터 패키지’를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선물 캠페인을 한다.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 ‘바울로부터 패키지’ 부스도 설치된다.

서빙고는 토요일예배(22일) 1~3부, 일요일예배(23일) 1~4부 로비에, 양재는 일요일예배(23일) 1~4부 사랑을 앞 안내데스크에 설치된다. ‘바울로부터 패키지’에는 책 〈바

〈패키지 구성〉

- 1. 〈바울로부터〉 도서 1권
- 2.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사진〉 1권
- 3. 〈바울로부터〉 북마크 13개
- 4. 〈바울로부터〉 영상 USB



울로부터〉 1권,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사진〉 1권, 선교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영상과 워크북이 담긴

USB, 북마크 13개가 들어있다.

문의: 02-796-980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헬로맘스쿨 서빙고 금요일전반 참가자 모집

헬로맘스쿨 서빙고 금요일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1주차와 6주차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 2~5주차 온라인 Zoom강의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1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7223-7280

‘미션퍼스펙티브스’ 1기 참가자 모집

대전온누리교회에서 ‘미션퍼스펙티브스’ 1기 참가자를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미션퍼스펙티브스’는 세계기독교 운동을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16일 한철호 선교사의 주일설교를 시작으로 6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이어진다. 주중에는 영상, 일요일 오후 5시에는 소그룹 나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별도).

문의: 010-3526-4754

계좌번호: 농협 302-3526-4754-41(김동욱)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본부 136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6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영어책 강독 클럽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믿음홀

영어책을 읽으면서 이주민 선교를 돕는 영어책 강독 클럽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이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더맵글로벌(The Map Global, 대표 이정숙 목사)이 주최하는 영어책 강독회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은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교회사 교수)가 인도한다. 이번

강독회에서는 존 스토틀(John Stott) 박사가 쓴 〈The Radical Disciple〉(IVP, 2010)을 읽는다. 회비는 매월 7만 원(월 4회 기준).

영어책 강독회를 주최하는 더맵글로벌은 KGMLF(Korea Global Mission Leaders Forum, 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와 이주민 선교, 이주민들을 위한 신학교를 돕는 사역단체다.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에서 더맵글로벌의 사역을 후원한다.

문의: 010-4047-0717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최취약계층 청년 직업교육 사업

NGO 더멋진세상에서 우간다 분쟁취약지역인 ‘카라모자’에 사는 최취약계층 청년 513명을 대상으로 ‘생계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이하 직업교육 사업)을 3개 기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UNDP(유엔개발계획),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다. 직업교육에서는 오토바이 수리, 양계, 콘크리트 타설, 미용 등을 배운다.

기술학교 3개 중 하나인 ‘우간다

카라모자 모로토 기술학교’(이하 모로토 기술학교)에서는 IT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NGO 더멋진세상에서 노트북과 프린터, 인터넷망 등 디지털 학습 시설을 설치 중이다.

정봉진 지부장(우간다)은 “NGO 더멋진세상 사업을 통해서 우간다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해 직업을 갖고, 생계를 꾸려나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모집

재정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웃 돕는 사역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돕는 사역이다. 전문 기관과 함께 성도들이 건강한 재정관과 재정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에서는 ‘기독교 정의와 부채탕감의 성경적 의미’, ‘부채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10-5550-3655)로 문의하면 된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

2월 28일 오후 8시~3월 1일 오전 5시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가 오는 2월 28일(금) 오후 8시부터 3월 1일(토) 오전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소속 대학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에서는 이인호 목

사(더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나라와 민족’,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 ‘다음세대와 가정’, 이서진 목사 ‘교회’, 최성민 목사 ‘선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신청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서 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공동체-사회선교 콘퍼런스’

2월 25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사회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 ‘1다락방1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누는 ‘공동체-사회선교 콘퍼런스’가 2월 25일(화)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사회선교본부 리더십, 각 공동체 대표 장로, 총무와 팀장, 사회선교 사역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체-사회선교 콘퍼런스에서는 최주관 장로 대표기도,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 이해와 1다락방1사역’ 주제

강의, 공동체 1다락방1사역 간증,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온라인(Zoom) 회의실에 참여할 때 반드시 이름을 ‘캠퍼스/공동체/이름/직분’으로 표기해야 한다(예: 양재/분당B/김종환/사회선교사역자). 온라인(Zoom) 회의실은 행사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주소는 추후 개별 공지한다.

문의: 02-3215-3434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현장, 온라인 병행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현장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현장 강의는 3월 8일(1주차) 오후 4시, 5월 17일(10주차) 오후 5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Zoom) 강의는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2~9주차)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한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훈련생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문화 교육론, 한국어 이해 교육론, 한국어 표현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14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888-9901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 모집

3월 4일~4월 29일 매주 화요일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소망을 전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김재석 목사, 김해지 전문의, 김도봉 목사, 김기철 교수, 최지은 선생, 이해원 팀장, 한형숙 간호사, 윤명례 원장 등 호스피스 전문 강사 8인이 강의한다. 문의: 010-3412-7966

2월 세레자

〈서빙고〉 김진해 700910 양경현 670712 이상아 930126 조하령 710130 황영희 761202 유아 김설연 230314 김의찬 이상아	김하연 240803 김의찬 이상아 박은우 221015 박성우 유예은 정예은 241023 정지현 임혜지 조이준 230330 조현래 최정인	〈양재〉 김태희 771111 김혜랑 730522 성문용 780217 심우태 720916 정수연 860921	〈대학청년〉 ■하늘 입교 우성윤 040520 우재윤 060426 ■J4U 김인성 930723 조민철 940207	■SNS 인치성 001116 입교 평하영 950727 유아 강주안 240320 강 건이슬기
--	--	--	---	--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권사칼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

홍은경 권사
(온누리호스피스)

나는 20대 때부터 앓아온 심장 문제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왔다. 죽음을 늘 묵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한 적도, 임종을 본 적도 없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호스피스학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알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힘겨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워 피하곤 했다. 나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죽음과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생각 자체를 피하며 살아왔다.

〈온누리신문〉에서 호스피스학교 광고를 봤다. 처음에는 외면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 광고가 생각나 접어두었던 〈온누리신문〉을 조심스레 다시 꺼내 봤다.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섬김의 손을 더하고 싶어서 호스피스학교에 들어갔다.

호스피스학교 교육 중에 양지에 있는 온누리요양센터로 실습을 나갔을 때가 생각난다. 봉사자, 의료진,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르신과 산책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호스피스 사

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병원사역에 동참할 봉사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매주 섬김의 봉사를 재개할 팀이 만들어졌다. 감사하게 나도 그 팀의 일원이 되어 섬김에 동참하게 되었다.

온누리요양센터에 가면 많은 어르신이 있다. 그중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는 분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다. 담당목사님은 그 어르신들에게 간결하고 함축적인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신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드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과 감사가 생긴다.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있는 병동에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한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찬송을 따라 부르신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찬송이 때로는 기도, 때로는 위로가 된다는 게 감사하다. 어르신들에게 찬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눈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한다. 봉사자의 역할은 지침이나 의무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환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지체를 섬기는 자로 살고 싶다. 은사대로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다테야마교회’에서 소식 전합니다

이대경, 홍경신 선교사
부부(일본)

한해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역하는 다테야마교회에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관계전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전도훈련을 하다 보니 전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순원이었던 세 명의 지체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매주 찾아오고 전화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연결되고,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존 물러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100%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내가 죽은 후라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해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최근 함께 일하는 마츠모토상에게 관계전도책자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다. 사역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에 전도가 불발돼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적어서 충격이 덜하지만, 관계전도는 불발되면 관계가 끊길 위험이기에 그 부담이 큼니다.

순원이었던 지체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전도

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럴까요? 전도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세례를 받았던 그 자매를 떠올립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도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의 한 형제가 방문했습니다. 설 연휴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요코하마에서 이를 머물고 다테야마에 차를 렌트해서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오니까 이곳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1층에 계신 어르신은 누군가 방문해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토상은 자녀가 없어서 항상 적적해 했는데, 그 형제에게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기억하고 방문해 준 그 형제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집 주차장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안경이 납작해지고 핸드폰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졌는데도 안경이 안 깨지고 특별히 다친 데 없이 얼굴에 멍만 들었다가 부기가 빠져 다행입니다. 주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나이 60이 넘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 쉽게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진짜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와 다테야마교회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우선 저희 부부가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다테야마교회 담임목사님이 3월 7일까지 미국 휴스턴으로 연수를 가십니다. 이 기간 저희 부부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신앙에세이

임용성 목사
(춘천새순교회)

나는 이 속담을 매우 좋아하고 공감한다.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누구나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나는 2010년 대전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로 부임했다. 성인공동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실천 목회를 배우고 익혔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단련하는 데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다 다음 해 8월,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벽예배를 인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겨우 설교를 마쳤다. 단에서 내려와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신 은혜

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쓰시려거든 상처가 남아 있고 기초도 아직 다져져 있지 않은 더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단단히 다져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드린 이후 하나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처지에 나를 두시고 훈련을 시켜 주셨다. 그렇게 대전온누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서빙고온누리교회 양천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곳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더없는 천국이었다. 3년 6개월을 전국 같은 곳에서 사역하면서 오래전 결단했던 그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이곳은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다. 서산온누리교회 담당목사를 뽑는 공고가 올라와 가까이 지원했고,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갈 수 있었다.

서산온누리교회로 온 처음에는 한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부딪쳐야 할 것도 많고, 세우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았다. 적잖은 오해와 질타도

많이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4년 이상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좋은 리더십들, 성도들과 함께 튼실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또다시 안주했다. 생명력도 없고, 열정도 식었으며, 고생보다는 편안함이 삶이 지향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던 중 본부로부터 ‘춘천새순교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춘천새순교회의 상황을 듣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교회의 명이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혼자 물끄러미 창밖을 보는데 대전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열정의 기도가 다시 떠올랐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회개기도가 나왔다.

춘천새순교회에서 혼자 예배집회와 새벽예배 셔틀, 주보 제작 등 다양한 것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도 자막 봉사자와 피아노 봉사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또 함께 헌수막도 달고, 주일 셔틀을 해 주

시는 장로님들,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는 권사님들, 변화된 예배의 형태,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가까이 수고하고 따라와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느 날은 교회 예산이 없어서 집에서 갖고 온 청소기로 한 시간 넘게 스피커를 청소하며 문득 선교사님들은 순교도 당하시고, 더없는 고통도 당하시며 헌신하시는데 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춘천새순교회는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 춘천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영성, 지성, 야성을 가지고 새롭게 발돋움해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 ‘메뚜기도 한 철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쓰임 받는 일이 줄어들 텐데 그러기 전에 한 철이라도 사용됨에 감사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우리에게 담아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나아가려고 한다.

CGN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바울로부터> 패키지를 통해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에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패키지 구성품

1. <바울로부터> 도서 1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2. <성경지명사전 & 바울 선교 여행 지도> 1권
3. USB 64GB
(바울로부터 한글판 10편, 영문 자막판 10편,
심화 강의 6편, 워크북 PDF 파일)
4. 바울서신 북마크 13종

가격 : 10만원 (국내·외 배송비 포함)



패키지
신청하기

